(제46권 5호)

주현절 후 다섯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5TH SUNDAY AFTER EPIPHANY

주후 2024년 2월 4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통일 39)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5번 시편 8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이사야 (Isaiah) 40:21-31**		김 현 집사
찬 양 Anthem	"사 명"		찬양대
설 교 Sermon	**"새 힘을 얻으리니" (Renewing The Strength)**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주의 사랑이 지금"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통일 394)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매일 수 많은 생각과 수 많은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말씀 가운데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고,
일상의 분주함으로 매일 쫓기듯 살았으며,
정작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룰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비춰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은 신앙과 삶으로,
우리도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 119:105)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개역개정 **사40:31**)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They will soar on wings like eagles; they will run and not grow weary, they will walk and not be faint." (NIV **Isaiah 40:31**)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2/4 (주일)	2/5 (월)	2/6 (화)	2/7 (수)	2/8 (목)	2/9 (금)	2/10 (토)
본문	창37 막7 욥3 롬7	창38 막8 욥4 롬8	창39 막9 욥5 롬9	창40 막10 욥6 롬10	창41 막11 욥7 롬11	창42 막12 욥8 롬12	창43 막13 욥9 롬13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2/7 오후7:30)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벧후1:1-11)
토요 새벽기도회 (2/10 오전6:30)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125:1-5)

지난 주일(1/28) 말씀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1-7)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왠지 주는 것 없이도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호불호(好不好)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것을 결코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롬5:8)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서로를 받아주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신앙과 삶의 무게 중심을 (과연) 어디에 두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바로) 1)보살핌, 2)환대 그리고 3)닮음입니다. 여기에서, 1)**보살핌**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마중물과도 같고, 2)**환대**는 서로의 곁이 되어 주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길이 되며, 3)**닮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보살핌으로,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이웃을 향해 무게 중심을 옮기는 환대로 서로의 곁이 되어 주며, 예수님을 닮음으로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